



액션·스릴·유쾌한 수사 아줌마 형사가 돌아왔다

SBS 드라마 '미세스캅' 시즌2 ~ 김성령 악마리연기 눈길

“저도 시즌1을 재미있게 본 시청자로서 좋은 작품의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데 흥미를 느끼기도 했어요.”

아줌마 형사 활약상을 그렸던 SBS TV 드라마 '미세스캅'이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김희애에 이어 2번째 '미세스캅'을 여주인공은 배우 김성령(49)이 맡았다. 최근 오후 양천구 녹동의 SBS TV 드라마 '미세스캅' 제작발표회에서 만난 김성령은 “부담감이 왜 없었겠느냐”고 털어놓았다.

시즌1의 중심에 섰던 아줌마 형사 김희애가 노련함과 부드러움으로 무장했다면, 김성령은 할리우드 액션영화에 등장할 법한 화려함과 독기로 가득 채웠다. 의상도 대조적이다. 김희애가 대중 목은 머리에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뛰어다녔다면, 김성령은 와인색 머리에 붉은 립스틱, 검정 매니큐어에 하이힐로 장식했다.

“부담감이 정말 많았죠. 김희애씨가 정말 연기도 잘했잖아요. 또 포그로틀게도 tvN '시그널'에서 여형사를 연기하는 김혜수씨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성령은 “그 부담감을 계속 느끼면 촬영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을 내려놓았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령이 분한 아줌마 형사 고윤정은 화려하고 세련된 외양으로 눈길을 끄는 캐릭터다. 일에는 도



연기 부담감
시원하게
날려 버렸죠

◀ 김성령

통 관심도 없어 보이지만, 뒤에는 한 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 독기를 가진 '미친 아줌마'이기도 하다.

김성령은 영화 '표적'에서도 형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액션스쿨을 다니며 액션 연기 수업을 받았던 경험만을 믿고 처음에는 작가에게 “액션을 잘하니 액션 분량을 많이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막상 액션 촬영을 시작한 다음에 좌절하기도 했다.

“손담비랑 함께 촬영하는 데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귀찮 한 번 들었을 때부터 어깨가 나가면서 촬영장 근처 한의원을 돌아다녔어요. 아직도 사

실 약간 불편해요.”

김성령은 “그래도 재미있고 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다”면서 “제가 평소 횡단보도에서도 안 뛰는데 이번에 전력 질주하니 스틸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즌1에도 출연한 김민중은 “김성령이 보여준 아줌마 형사 고윤정은 강렬하고 여성으로서 과시하고 싶은 색시함도 있다”면서 “시즌1보다 더 센 분이 왔다”고 설명했다.

시즌2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김민중은 이번에는 멜로 연기를 꼭 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이밖에 고윤정이 이끄는 강력1팀 형사로 임슬웅(오승일 역)과 손담비(신여욱 역) 등이 출연한다.

'미세스캅'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할 거역 이로운 역에는 김범이 캐스팅됐다.

이로운은 사채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채회사 대표다.

두 번째 시즌 연출도 맡은 유인식 PD는 “시즌2는 더 유쾌하고 활기차고 사이드 같은 수사극”이라고 시즌1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미국드라마처럼 처음부터 시즌제를 기획하지 않았기에 시즌1 출연자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진로를 수정, 미세스캅 2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유 PD는 “시즌1이 어디엔가 있을 법한 형사들의 수사극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세상에 만약 이런 형사가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모닥불' '세월이 가면' 박인희 35년 만에 컴백 무대

1970년대 혼성듀엣 '뚜아에무아' 출신인 1세대 여성 포크 가수 박인희(71·사진)가 35년 만에 국내 무대에 컴백한다.

공연기획사 소플라스는 4일 “박인희 씨가 음반 ‘박인희 컴백 콘서트-그리운 사람끼리’를 개최한다”며 가수 활동을 재개하는 건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35년 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주한인방송국(KCB)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994년 KBS 2FM ‘박인희의 음악앨범’ DJ로 3개월간 국내 방송 활동을 했지만 가수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 공식적으로 35년 만이다.

공연은 5월개로 알려졌는데 1970년대 대표 가수인 정미조가 37년 만에 세 앨범을 내고 화가에서 가수로 돌아온 데 이은 소식이어서 더욱 반갑다.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에서 라디오 진행 외에는 가수 활동을 안 하셔서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것은 35년만”이라며 “그간 국내 방송 복귀와 음반 출시 제의가 많았지만 응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공연을 결정하셨다. 직접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박인희 씨를 섭외했다”고 말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불문과 출신인 박인희는 1970년대 초 혼성듀엣 뚜아에무아로 활동했으며 1972년 솔로로 독립했다. 그는 ‘모닥불’, ‘끝이 없는 길’, ‘그리운 사람끼리’, ‘세월이 가면’, ‘봄이 오는 길’ 등 직접 작사·작곡한 곡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여성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존재감을 알렸다.

그는 ‘노래하는 시인’이란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글쓰기와 시를 좋아했으며 국내 최초로 ‘목마와 숙녀’, ‘얼굴’ 등의 시낭송 음반을 히트시키기도 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 라디오 DJ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 그는 1981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채 팬들 곁을 떠났다. 그러나 1989년 풍문여중 동창인 이해인 수녀와 함께 수필집 ‘소망의 강가로’를 출간했고, 1994년에는 자신의 시집 ‘지구의 끝에 있더라도’를 내기도 했다.

공연 일정은 오는 14일 서대문구 흥선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걸스데이 헤리, 뇌수막염 입원

고열·두통 호소

걸스데이 헤리(22)가 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소속사 드림엔터테인먼트는 6일 “헤리가 오는 오전 9시에 고열과 머리 통증을 호소해 집 인근 강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며 “진단 결과 뇌수막염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라고 밝혔다.

헤리는 지난 5일 주인공 성덕선으로 출연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콘서트’ 무대에 오른 뒤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갑자기 증상을 동반한 고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화보 촬영과 내일 광고 촬영 스케줄은 취소했으며 향후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킹 특선 (밥상의 전설) 55 안녕 우리말(재)	00 월화드라마 (무림학교)(재)	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점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출발드림팀 2(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2	30 직언직설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불멸의 정년 운동주)(재)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한국인의 밤(재) 55 튜브생방송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토크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추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2016 리우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교체전성) 30 이윤정 PD의 자연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인생 저두야 55 TV블로그 품지락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시사진단	00 글로벌 남평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스페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유혹이 나르사)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관찰야 관찰야
12	4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재)	20 해외결정드라마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라이브 토크 (부부)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미란 눈 사위 스티븐의 한국사랑)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대기행 (열대의 푸른늑대, 태국)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황급은 영키스퍼너 제과제빵기계 김대인)	11:00 세계대기행(재) (속감자꽃과 뱀어포고추류음)	15:40 으랏차차 아이쿠	21:30 한국기행 (바다가 보이는 골목)
06:10 EBS 인문학 특강 (내 사위의 여자)	11:40 한국기행 (겨울왕국 울릉도)(재)	16:00 캐니멀(재)	21:50 EBS 다크 프라임 (백상의 물고기 빛을 삼킨 뱀)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점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	22:45 달라졌어요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공간 (우리)	16:45 덩동덩 유치원 1~3(재)	23:35 시대공간
07:45 뽀롱뽀롱 보로로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30 뽀롱뽀롱 보로로(재)	24:05 지식채널 e
08:00 덩동덩 유치원 1~3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24:10 EBS 인문학 특강
08:45 코코코 다코	13:50 원더볼츠(재)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09:00 캐니멀	14:00 미술탐험대	19:30 EBS 뉴스	
09:30 원더볼츠	14:30 부릉부릉 부미미즈	19:50 다문화 교부 열전 스페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1월 29일 戊子)

<p>子</p> <p>48년생 외형적인 판단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60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72년생 여유있게 마무리하고 나아 후 일을 도모하게 용이하다. 84년생 삼사일언하며 삼가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수다. 행운의 숫자 : 63, 04</p>	<p>午</p> <p>42년생 입장이 상호 뒤바뀔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54년생 제때를 만났으니 험겔 내달려야만 한다. 66년생 다소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 78년생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니 흐름을 따르라. 행운의 숫자 : 31, 56</p>
<p>丑</p> <p>49년생 어렵치고 한 일이 우연히도 잘 들어올 수다. 61년생 에타게 기다릴 일이 있다. 73년생 번거롭더라도 꼭 참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데 용이한 길목을 터준다. 85년생 세상이 변한 다고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5, 84</p>	<p>未</p> <p>43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55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67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니 단순히 판단하지 말라. 79년생 늦지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20, 39</p>
<p>寅</p> <p>50년생 상호적이니만큼 일방만을 타할 일이 아님을 알라. 62년생 생 타고 남은 불기운이라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86년생 양 면성을 모두 띠고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5, 43</p>	<p>申</p> <p>44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56년생 익숙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서 할만 하리라. 68년생 상대의 갑작스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22, 12</p>
<p>卯</p> <p>51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없이 행해 보라. 63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제가 못되니라. 75년생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87년생 대수롭지 않다. 행운의 숫자 : 53, 28</p>	<p>酉</p> <p>45년생 밤심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니 잘 간수해야 한다. 57년생 성사시키기에 아직 역부족이다. 69년생 잡으려는 것은 안 잡히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만 들어오는 꼴이다. 81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76, 49</p>
<p>辰</p> <p>40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리라. 52년생 여파가 상당하다. 64년생 일단 임하고 불일이다. 76년생 총괄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88년생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8, 71</p>	<p>戌</p> <p>46년생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58년생 주장이나 의견을 속 시원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70년생 연속적이라면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82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행운의 숫자 : 61, 94</p>
<p>巳</p> <p>41년생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겠다. 53년생 잘못 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날이다. 65년생 억지사죄해보면 답이 나온다. 77년생 힘들 것이다. 89년생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37</p>	<p>亥</p> <p>47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59년생 애매하여 쉽게 선택하지 못할 수다. 71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 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83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87, 8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